

고성군 노인 일자리사업 본격 추진

총 8억원 투입 516명 선발 ... 읍면사무소·노인회 고성지회·노인복지회관서 수행

올해 고성군 노인 일자리사업이 시동을 걸었다.

고성군은 맞춤형 일자리 제공을 통해 노인소득을 창출하고, 노인들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 7일부터 노인일자리사업 추진에 들어갔다.

이에 앞서 군은 지난 2월 노인일자리사업 공모를 통해 고성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일부사업은

60세 이상) 신청자 800여명 중 516명을 선발했다.

읍·면에서 시행하는 공익형사업 316명, 대한노인회 고성군지회와 고성군노인복지회관 2개수행기관에서 시행하는 복지형사업 200명이다.

총 사업비 8억원을 투입해 추진하는 올해 노인일자리사업은 읍면에서 시행하는 공익형사업의

경우 쓰레기수거, 환경정비, 화단가꾸기 등이다.

대한노인회 고성군지회에서 위탁 운영하는 복지형사업은 주거환경개선, 건강한 노인들이 보호가 필요한 독거노인을 돕는 노노케어사업이다. 또 고성군노인복지회관에서 위탁 운영하는 복지형사업은 학교급식도우미, 장애인돌봄지원, 노인학대예방사업

등이다.

일자리사업에 채용된 노인들은 하루 4시간씩 주3일로 월 36~46시간 근무하며, 기관별로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임금은 1인당 월 20만원 이내로 지급된다.

한편 고성군은 지난해에도 6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409명의 어르신에게 일자리를 제공했다.

군 관계자는 “노인일자리 사업은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자리 잡고 있어 매년 일자리를 신청하는 노인이 증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노인일 자리를 창출하고, 지원을 확대해 행복한 노후생활을 영위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최광호 기자



화진포 국제 관광휴양지 사업설명회 지난 10일 고성군 현내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리솜리조트 임직원과 현내면 16개 마을 이장이 참석한 가운데 화진포 국제 관광 휴양지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박승근 기자

봄맞이 쾌적한 환경 조성

공중화장실·불법광고물 일제정비

고성군은 14일부터 18일까지 공중화장실 및 불법광고물에 대한 일제정비를 추진한다.

봄철 공중화장실 일제점검은 40개소 공중화장실을 대상으로 화장실 내외부 청결관리 상태, 관리용품 적정비치 여부, 소모성 편의시설 고장 여부 등에 대해 중점 점검한다.

군은 지난 4일 동절기 폐쇄화장실(공현진 다목적광장 및 거진 조형물공원)에 대한 점검을 벌여 개방 여부를 검토하는 등 공중화장실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또 5개읍면 국도변 및

시가지 일원에서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광고물에 대한 점검을 벌였다.

특히 보행자의 통행안전을 위협하고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현수막, 입간판, 에어라이트, 벽보, 전단 등 불법 유동광고물과 미풍양속을 해치는 광고물을 정비했다.

군 관계자는 “공중화장실 및 불법광고물을 철저히 관리해 이용객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관광객들에게 청정고성의 이미지를 심어줘 다시 찾고 싶은 고장으로 만들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최광호 기자

고성신문 주주를 모집합니다

‘행복한 고성 만들기·행정과 주민의 가교·등잔 밑을 밝히는 신문’이란 창간이념으로 새롭게 창간한 고성신문에서 지역발전을 위해 함께 할 주주를 구합니다.

사업매력

- ◇ 신문발행
- ◇ 지역문화 발전
- ◇ 홍보물 기획·제작
- ◇ 기타 부대사업

-1주의 금액 : 10,000원
 -주권의 종류 : 1주권, 10주권, 100주권

문의 ☎033)681-1667

주식회사 고성신문